

사찰음식, 전주의 입맛 사로잡다

불교문화사업단, 사찰음식 홍보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범진)은 대한민국 맛의 1번지 전주에서 진행되는 한국음식 관광축제 '201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2012 전주비빔밥축제'에 참가해 사찰음식이 지향하는 정신적 가치와 중요성을 전 세계인들에게 알렸다.

10월 18~22일까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는 '힐링푸드(Healing Food), 사찰음식'이라는 주제로 한식문화관 사찰음식부스에서 사찰음식을 전시하고 홍보에 나섰다.

'생명을 살리는 발효'라는 엑스포 주제에 맞춰 적문 스님, 우관 스님, 정관 스님 등 사찰음식 명인 스님들이 출품한 사찰음식이 실물 전시되고 부스에는 복분자 무장아찌, 명이 장아찌 등의 각종 장아찌들과 사찰 신선로, 연근 삼색튀김, 오이 물김치 등의 사찰음식 20여 가지가 전시돼 관람객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개막식에 참가한 20여 개국 350개 기업과 기관 관계자들도 사찰음식 부스를 방문해 사찰음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반영했다.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가수 겸 연기자 장나라씨도 사찰음식 부스를 방문해 정관 스님의 설명을 듣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장나라씨는 "외국활동을 하면서 한식의



전주 발효식품 엑스포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가수 겸 연기자 장나라씨(사진 맨 오른쪽)도 사찰음식 부스를 방문해 정관 스님의 설명을 듣고 많은 관심을 보였다.

세계화를 몸으로 직접 느끼고 있다"며 "특히 사찰음식을 비롯한 한식이 한국의 멋과 맛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주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고 있다는 캐나다 출신의 캘리(kally)씨는 사찰음식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주에 살면서 다양한 한국음식을 접했지만 사찰음식은 일반 한식과 차별성이 느껴진다"며 "직접 먹어볼 수 없어 아쉽지만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발효식품 엑스포 기간 동안에는 적문 스님, 정관 스님, 우관 스님이 매일 직접 강사

로 나서 작설차 애호박 전병말이, 함초장아찌 밥, 유자청도라지 생채의 조리법을 직접 시연했다. 또한 참가자들이 체험하는 '사찰음식 쿠킹클래스'에는 사찰음식을 배우려는 일반참가자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같은 기간 전주시 교동의 한옥마을일원에서 열리는 '2012 전주비빔밥축제'에도 '사찰음식 무료시식 및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사찰음식 특화사찰로 지정된 대전 영선사 법승 스님과 신도들이 참여해 오전 오후 4차례에 걸쳐 '연잎밥 만들기 체험'과 도토리묵구이, 삭힌 갯잎밥, 사찰비빔밥 등

시식회를 열었다.

사찰음식 체험 참가자들은 올바른 식문화운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하는 '올바른 식문화 운동 실천서약서'에 서명하고 사찰음식 체험에 참여했다.

정병호(전주시 중화산동)씨는 "일반음식과 달리 담백하고 그윽한 향이 배어있어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필요한 만큼의 음식만 준비해서 먹는 습관을 들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범진 스님은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번 201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와 전주비빔밥축제에 사찰음식을 선보이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찰음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국의 우수한 식문화를 널리 대중화하고 세계화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음식 관광축제 '2012 전주 국제발효식품 엑스포'는 20여개국 350여개 기업과 기관에서 참여하고 연인원 55만 명의 관람객이 엑스포 전시장을 찾고 있다.

불교문화 사업단은 템플스테이 1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10월 31일부터 조계사 주변에서 10주년 기념식과 전시회, 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한다. 또한 전국 109개 운영 사찰에서는 10월까지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을 초청한 템플스테이 체험행사와 특별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영암지역민들과 열린 도량 만들 것"

도갑사 주지 설도 스님 취임법회 봉행



도갑사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및 주지 설도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사진은 주지 설도 스님

영암 도갑사(주지 설도)가 도선국사 탄신 1185주년을 맞아 지난 10월 10일 경내에서 도선국사 문화예술제 및 주지 설도 스님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도갑사 주지로 취임한 설도 스님은 "도선국사는 기운이 부족한 곳에는 기운을 북돋아주고, 넘치는 곳은 그 기운이 잘 흐르도록 하여 이 땅의 민중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도했다"며, "도선국사의 애민에 촉하는 마음과 수행가풍을 이어받아 도갑사가 지역민들이 함께 하는 도량으로 만들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행사는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 조계종 법규위원 몽산 스님을 비롯해 김일태

영암군수, 하대주 신도회장 등 8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문화예술제에는 도선국사 다례제, 도선국사 기념법요식 및 주지 취임식이 봉행됐다. 이어 '뮤지컬 제작과 에피소드'라는 주제로 한국 최고의 뮤지컬 프로듀서인 박명성 선생(신시컴퍼니 대표)의 특별강연이 진행됐으며, 대적광전 앞 특설무대에서는 산사음악회가 개최됐다. 산사음악회에는 노래하는 스님인 범능 스님과 가수 이용, 현수 등이 출연해 관중들에게 가을음악의 진수를 선사했다.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는 2006년을 시작으로 올해 7회째 맞이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익산불교신도회 이웃에 자비의 연탄 배달

익산지역 불자들이 연탄으로 겨울 난방을 하고 있는 어려운 이웃 58가구에 1만 1000여 장의 난방용 연탄을 전달했다.

익산불교신도연합회(회장 박중근)는 10월 14일 익산시청에서 이준석 국회의원, 이한수 시장, 김대오 시의장과 불자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자비의 연탄나누기 발대식을 갖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가정을 방문에 연탄을 배달했다.

박중근 회장은 "해마다 독거어르신들

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등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직접 배달해 오고 있다"며 "어려운 이웃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마음이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익산불자들이 전달한 연탄(약 600만원 상당)은 지역의 사찰과 스님, 불자들이 후원금을 모아 익산시와 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어려운 가정에 직접 배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불교신도연합회는 10월 14일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1만 1000여 장을 전달했다.

내장사, 첫 산사음악회 열어

내장산 산봉우리들이 붉게 물들고 있는 가을 단풍의 명소, 정읍 내장사에 주옥같은 우리 가곡의 향연이 펼쳐졌다.

내장사(주지 지선)는 10월 12일 대웅전 앞 특설무대에서 '제1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했다.

'내장사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처음 열린 산사음악회는 내장사 서래합창단과 해금 채수경, 소프라노 이세진 등 음악인들이 '산들바람' '섬집 아기' 등 우리 귀에 익숙한 가곡과 동요 등을 선보였다.

지선 스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으로 가는 작은 길을 여는 의



미로 산사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절마다 시인묵객들이 찾아 시심을 노래한 내장사에서 가을 추억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포교원 전북지역 불교대학 연수교육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전북지역 신도전문교육기관인 4개 불교대학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10월 13일 김제 금산사 개산 14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번 연수교육은 화엄불교대학, 이리불교대학, 남원불교대학, 참

좋은 우리절 불교대학 등 전북지역의 4개 불교대학 재학생 190명이 동참했다.

문화국장 수진스님의 강의로 진행된 이날 연수교육은 종단의 이해와 신도로서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 4시간동안 이어졌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추억의 템플스테이 개최

김제 금산사(주지 원행)가 사찰음식 체험관 준공을 자축하고 그동안 금산사 템플스테이를 경험했던 참가자들을 초청하여 '추억의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10월 13~1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리는 추억의 템플스테이는 사찰음식 시식, 탁본체험, 풍물장터에 이어 저녁7시부터는 가을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행사가 진행되는 금산사 서래선원 곳곳에 형형색색의 소원 한지등이 불을 밝혀 분위기를 고조시킨 가운데 참가자들은 삼삼오오 지난 템플스테이의 기억을 더듬고 함께 체험했던 산사에서의 추억을 되새겼다.

금산사 조실 월주 스님과 주지 원행 스님, 지역주민 등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된 산사음악회는 재즈피아니스트 안병주, 국악 크로스오버 AUX, 가수 김용진, 가수 조성일씨 등이 출연해 산사에서 맞이하는 깊은 추억을 되새기고 지난 템플스테이를 회상해 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는 금산사 템플스테이가 시작된 지난 2004



추억의 템플스테이 행사에서는 사찰음식 시식, 탁본체험, 풍물장터에 이어 저녁7시부터는 가을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년 이후 5만명에 이르는 참가자들에게 대한 작은 감사 이벤트로 매년 가을에 개최돼 왔다.

금산사 수련원장 일감 스님은 "금산사 추억의 템플스테이는 그동안 템플스테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함께 꾸미는 가을 한마당이다"며 "공감의 시간, 소통의 장소 템플스테이에서 가을 산사의 정취를 느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만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봉사여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들 출가익식 지원**
신부들은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띠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